

중년기 남성의 아버지 역할 정체감과 아버지 역할 수행

박 응 임(안동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남성의 위기’, ‘고개 숙인 아버지’ 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기 남성들에게 흔히 따라 붙는 수식어들이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부정적이며, 남성의 권위가 과거에 비해 하락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렇다면 과연 실상이 그러한가? 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결론을 쉽게 내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예전에 비해 제대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며 남성들이 사회의 주요한 위치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중년기 남성에게 ‘위기’라는 표현이 흔히 쓰여 지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사회의 여러 체계들 중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가족 내에서 남성이 가지는 지위, 특히 아버지로서 가지는 지위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발전도약 시기인 과거 70, 80년대 한국 가족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사역할,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자녀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공부하는 것이 중산층 가족의 일반적 생활양상이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관여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권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가정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다(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인의 의식 및 행동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어머니의 취업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양자로서 아버지 역할이 갖는 절대적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가족의 기능 중 정서적 지지 제공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가족구성원 간에 평등하며 민주적인 관계를 지향하게 되면서 아버지 역할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바르게 지도 감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친근하게 상호작용하며 대화하는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된 것이다(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 이숙현, 2001; 이영환, 2005; 이창영, 2003; 장재홍 외, 2000).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자신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가? 인간이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인생목표, 가치관 또는 이념 등자기가 지니는 독특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해가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을 자아정체감이라고 볼 때(박아청, 1998), 아버지로서의 자아정체감이란 ‘한 남성이 자신

의 독신 청년기로부터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의 부모로 발달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하며,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볼 수 있다(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

자아정체감이 성인의 심리적 안녕 수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볼 때(김순기·유영주, 2001). 중년기에 있어서도 자아정체감 발달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여태까지 남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직업 역할과 관련지어 왔다. 이에 반해 가족관계 내에서의 역할 특히, 아버지 역할과 관련지어 남성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경우는 드물다. 중년기는 남성의 생애단계상 '제 2의 청소년기'로 일컬어지며 정체감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수반되는 많은 사회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한경혜, 1998), 체력의 쇠퇴, 자녀의 성장, 결혼에 의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 자기내외의 변화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박아청, 1995).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에 비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으며 특히, 이 시기에 아버지로써 남성이 갖는 아버지 역할 정체감에 대한 고찰이나 실증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체감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 역할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준다. 따라서 아버지 역할 정체감이 높을 경우 아버지 역할 수행 역시 잘 할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버지 역할 정체감과 아버지 역할 수행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아버지들이 변화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체감과 아울러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업역할 수행에서 오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과 더불어 역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고찰 거의 없어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역할 정체감과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는 아버지 역할을 둘러싼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한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갖는 아버지 역할 정체감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 역할 수행의 실제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해봄으로써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가족 역할 중에서도 부모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다른 가족 역할에 비해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조원지, 2000)을 고려할 때 더 의미 있는 고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중년기 남성의 아버지 역할 정체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성정체감, 인생진로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서 이미 만들어져 갖고 있던 성인으로서의 안정과 균형을 심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Machtlinger, 1981). 확대가족 및 직계가족의 구조를 지닌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부모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조언자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동일시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

요한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는데(Mächtlinger, 1981), 부모가 자신의 부모 세대에게서 경험한 양육 방법은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들어맞지 않아 자녀에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대의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객관적 이해 없이 부모의 지위에 오르게 되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 당황하게 된다(정현숙 외, 2002). 이 같은 어려움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아버지 역할의 정체감에 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역할에 대한 정체감과 달리 부모 역할에 대한 정체감이 있어서는 대부분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육아라는 현실적 행위에 열중하게 되므로,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경험적 학습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정체감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해간다고 볼 수 있다(박아청, 1995).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실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고 소극적이므로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확고하게 발달시키기가 쉽지 않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대한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사회는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유교적인 가치관이 근간을 이루었다. 전통적 자녀양육의 대표적인 기본 원리로 엄부자모의 원리, 효의 원리, 모범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전통적 부모역할 중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바른 태도는 엄하고 친함이고, 어머니가 그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자비로움이었다(정현숙 외, 2002). 전통사회에서 자녀를 신체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었으며, 자녀가 말귀를 알아듣고 철이 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남자의 일을 가르쳤으며, 딸에게도 더욱 성장해서는 아버지가 도덕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지고 실제 행위에서는 어머니가 가르쳤다(이광규, 1990). 특히, 아들의 경우는 가계의 후계자가 될 것이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부터 사회생활과 경제적 운영 등을 몸에 익혀 자기보다 낫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아버지는 특히 아들에게 자상한 태도를 감추고 엄한 태도를 취하였다(이광규, 1990). 그러나 이와 같은 엄부자모의 부모역할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성역할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양분되어지지 않고,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장자를 통해 가계를 계승해 온 우리 문화에서 아들은 그 집안의 미래였으므로, 아들이 집안에서의 일보다 집안을 위하여 '성공'하기를 기대하였고, 남성에 대한 기대치는 가장으로서 대외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활동을 잘해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집안에서의 사사로운 정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소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강조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남성들은 바깥일에 주로 정신을 쓰고, 감정적 해소도 바깥에서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하게 되었다(조옥라, 2000). 특히 산업사회가 되면서 일터와 가정이 양분됨에 따라 남성은 직업적 역할에만 더욱 더 치중하게 되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은 거의 등한시하게 되었다. '고독한 아버지' 이미지는 산업 사회의 아버지상이었고 남성다움의 신화이기도 했다. 일만이 남자를 증명하는 길이며, 성공은 최고의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여성을 위한 모임, 1994).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고, 아버지는 경제적 도구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 남성들은 서구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용감성'에 기반을 둔 '남성성'을 갖도록 장려되지 못하고, 유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학문을 수련하는 '양반'문화와 농경문화의 영향아래서 오히려

‘선비’적 남성이 더 이상화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남성의 일상은 여성들의 보살핌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가정 속에서 남성들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특히 자녀교육에 관여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더욱 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현실을 초래하였다(조옥라, 2000).

1970년대의 연구(위영희, 1978)에서 밝혀진 아버지 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은 ‘훈육의 역할’, ‘경제적 지원의 역할’ 및 ‘가정 융화의 역할’을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로 보았다. 어머니 역시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로 ‘인적 환경 조성의 역할’, ‘경제적 안정의 역할’, ‘훈육의 역할’을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심적인 아버지 역할이 도구적 역할로 여겨지던 시대적 가치관을 입증해주었다. 1980년대 중반에 행해진 연구(김미영, 1985)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경제적, 물질적, 인적 환경 조성의 역할’이었고, 반면 ‘정서적 안정감’과 ‘애정 및 관심을 갖는 역할’은 비교적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후기 산업사회와 더불어 정보화 사회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성 취업의 증가 및 소자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성역할 가치관도 변화하게 되었다. 산업역군으로 나섰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일터는 더 이상 평생직장이 아니며, 가족은 언제고 돌아와 푸근하게 설 수 있었던 품인 가족은 더 이상 비빌 언덕이 되지 못하고 있다(정유성, 2005). 따라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경제적 능력 여부를 떠나서 정서적 관계에서 얼마나 가족에게 충실했는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아버지의 형식적 권위만이 인정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자녀양육과 가사역할, 도덕적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지 않으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버지는 소외되고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위치는 추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즉, 오늘날의 아버지는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이 추가된 아버지의 기능인 가정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다(장재홍 외, 2000; 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남성에게 이전보다 더 능동적으로 아버지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적절하게 훈육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한 제반 역할을 공유하며, 민주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상대자로서 자녀를 이해하는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다(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 실제 조사 연구에서, 최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624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바라는 아버지역할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책임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적극적이며 양육적이고 보호적인 아버지 즉, 친구 같은 아버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환, 2005). 그리고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아버지 상에 대해 조사해보았더니, ‘바람직한 성격형성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정서적 안정성을 갖게 하는 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훈육하는 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도하는 일’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물질의 제공’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열, 1985).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에 대해 알아본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 대해 가지는 과거의 아버지 모습의 특징은 ‘엄한 아버지’와 ‘자녀와 대화가 별로 없는/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였다. 이에 반해 현대 사회의 아버지에 대한 특징적인 변화로 여기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가정적이며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고, 또 다른 하나는 부권의 축소였다. 그리고 이상적 아버지 모습으로는 경제적 부양자 역할과 더불어 '대화하는 아버지',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아버지',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로 나타났다(한경혜, 1999).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장재홍 외, 2000)에 의하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아버지의 모습으로 '튼튼하고 자상한 아버지'를 가장 우선으로 원하였고, '애정표현을 잘하고, 친구 같으면서, 자녀와 의논하는 태도를 가지며 잘못에 대해 엄격한 아버지'를 바람직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대 ~ 50대 아버지 30명과 부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아버지 정체성을 알아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은 기존의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에 더하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아버지의 정체성에 따른 요구로 갈등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동시에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상하게 보살피고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가정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정서적 인간관계나 대화기술에 대한 훈련도 전혀 안되어 있어 많은 아버지들이 위축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령기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39세 이하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80.5 %였음)를 대상으로 알아본 아버지 역할 몰입에 관한 연구(김소영·옥선화, 2000)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직업역할에 비해 아버지 역할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책임을 느끼며,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지각수준도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해석하고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역할 몰입을 '균형 잡힌 몰입형', '아버지 역할 무관심형', '아버지 역할 몰입형' 및 '전반적 무관심형'의 네 가지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직업역할에 가치와 중요성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버지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나타내는 '균형 잡힌 몰입형'이 가장 많은 전체의 3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직업역할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역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 하지만 아버지 역할에는 무관심한 '아버지 역할 무관심형'도 두 번째로 많아 전체의 28%를 차지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상형과 현실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소영·옥선화, 200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사회가 갖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과거 도구적 역할만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생계유지의 역할과 더불어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역할도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아버지 역할 정체감의 변화를 현재 아버지 자신도 인식하고 있지만, 전통적 양육방식에 의해 자라온 아버지들은 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적 아버지 역할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양식을 택해야 하는지 당황하고 있다(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

3. 중년기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에의 참여는 가족 내 정서적 안녕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 따라서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 역할 정체감의 변화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 ‘친구 같은 아버지’를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아버지 역할 수행 정도는 매우 낮고 아버지의 실제 행동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지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김소영·옥선화, 2000).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우리사회의 남성들은 자신을 경제적 부양자로 여성은 가사와 양육의 담당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그다지 증가하고 있지 않다(강란혜, 2000; 김현주, 2002). 자녀양육은 부부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는 남녀 모두에게서 높지만,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아내가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을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 수행을 알아본 장미나(1993)의 연구 결과, 아버지의 대부분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는 자녀와 신체적 놀이를 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전효숙의 연구(1990)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의 실제 수행도를 알아 보았는데, 아버지 연령이 젊을수록(30대 이하) ‘휴일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역할’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역할’과 ‘휴일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역할’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였다.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대해 알아본 결과(김경신·김미란, 1988), 아버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매우 높게 의식하고 있었으나 실행의 경우 인식보다 그 수준이 아주 낮았다. 또한 아버지 역할 실행 영역도 ‘가족 부양자의 역할’에 대한 실행이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나 ‘보호관리 역할’에 대한 실행보다 높게 나타나 여전히 아버지 역할이 도구적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해 알아본 연구(변화순·서명선·김홍숙, 1995)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및 정체성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나 그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역할 수행 실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참여정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는 아직도 매우 낮고, 아버지가 바빠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생활, 현재 생업과 직장생활, 입시에 허덕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여러 제약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한편, 실제 아버지 역할 행동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한경혜, 1999)에 의하면, 연령과 계층에 따라 역할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고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적극적 아버지 역할 행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조원지(200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역할 수행 정도가 아버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 역할 수행 정도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젊은 남성들이 아버지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역할 수행정도도 높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대중매체 등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실제로는 극히 일부의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일반화 되어 마치 대다수 젊은 아버지들의 모습인 것처럼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조원지, 2000)고 해석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3,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장재홍 외, 2000)에 의하면 아버지 10명 중 6명(전체의 60.6%)은 자녀와 함께 놀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는 전체의 36.2%만이 1시간 이내였다. 반면 3시간 이상은 아버지의 경우는 9.1%, 어머니의 경우는 19.8%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지도에 관한 일을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아버지에게 물어본 결과, '모든 일을 아내가 알아서 한다' 혹은 '대체로 아내가 알아서 하고 특별한 사항만 의논한다'가 전체의 65.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모든 일을 내가 결정 한다'와 '대체로 내가 결정하고 특별한 사항만 의논 한다'는 5.7%에 불과해 자녀지도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기보다는 대부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버지들이 자녀지도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이 43.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뒷받침의 부족'이 19.2%, '자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18.9%의 순으로 나타나,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아버지 본인들도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가장으로서 경제적 뒷받침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장재홍 외, 2000).

24시간 동안 자신의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버지들은 자녀들 돌보는데 다음 <표 1>과 <표 2>와 같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실제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 수행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표 1>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비 맞벌이 가구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소비하는 시간은 어머니가 3시간 20분인데 비해, 아버지는 1시간 2분이었다. 특히 자녀를 신체적으로 돌보아주거나 책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등의 영역에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시간소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에서도 어머니는 1시간 11분을 소비한 반면, 아버지는 36분만을 소비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는 비 맞벌이 가구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자녀 보살피기에 소비하는 시간량의 차이가 적었다. 미취학 아이를 보살피는데 어머니는 1시간 13분을 소비하였고, 아버지는 56분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커 신체적 돌보기의 경우, 어머니는 1시간을 소비하였으나, 아버지는 36분만을 소비하였다.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어서 인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보살피는데 소비한 시간이 적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방문은 어머니가 38분인데 비해 아버지 1시간 1분으로 더 많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비 맞벌이 가구의 생활시간조사(2004년) 중 가족 보살피기

단위(분)

세부영역	요일평균(남편)	요일평균(주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1:02	3:20
신체적 돌보기	0:36	1:54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56	1:36
미취학 아이 간호	0:43	0:42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0:23	0:34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36	1:11
씻기기, 등·학교 도와주기	0:23	0:33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41	0:57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방문	0:23	0:37
초·중·고등학생 간호	0:32	0:42
기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32	0:30

(출처) 통계청(2005)

이상과 같은 통계수치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어머니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것과 같은 일은 아직도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져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역할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맞벌이 가구의 생활시간조사(2004년) 중 가족 보살피기

단위(분)

세부영역	요일평균(남편)	요일평균(주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0:57	1:36
신체적 돌보기	0:36	1:00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51	1:04
미취학 아이 간호	0:30	0:34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0:19	0:2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38	0:43
씻기기, 등·학교 도와주기	0:18	0:25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46	0:44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방문	1:01	0:38
초·중·고등학생 간호	0:36	0:45
기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29	0:24

(출처) 통계청(2005)

한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만족할수록 아버지의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진다(서정아, 2002; 조원지, 2000)고 한다. 이는 실증적 연구에서 뒷받침되어지는데,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원지, 2000)에서 40~50대 남성의 경우, 30대 남성과 달리 직업역할 수행의 정도는 심리적 복지감과 무관하며, 아버지 역할 수행정도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복지감에 아버지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남성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는 삶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의 역할을 하는 반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서 스스로 아버지 역할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이 저하되고 이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건강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한경혜·송지은, 2001). 실제 연구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변화가 적은 것으로 지각하는 남성들이 우울증 경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가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었다(한경혜·송지은, 2001).

4. 나가는 말

자녀를 따뜻하게 돌보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남아가 아버지와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더 자주 보상을 제공해주므로 남아는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를 많이 얻게 된다. 즉, 양육적인 아버지는 비양육적인 아버지보다 유용한 성역할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양육적인 아버지에게서 자라는 아들일수록 아버지를 모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Biller, 1981).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그 자녀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더 쉽게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사실, 아버지 역할 정체감과 아버지 역할 수행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는 논쟁만큼 전후 맥락을 구분하기 어렵다. 물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체감이 확고하게 정립되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버지 역할 정체감이란 사유(思惟)를 통해 확립하기 보다는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경험적 학습을 통해 확립해간다고 보았을 때(박아청, 1995),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투자할 때 비로소 아버지로서 자신의 정체감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 역할을 둘러싼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 역할 정체감에 대한 고찰에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변화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은 높았으나, 실제 아버지 역할 수행 면에서는 그 정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아버지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역할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IMF 이후로 아버지의 직업 환경은 더 열악해진 느낌이다. 아버지들이 직장에 머무르거나 직업과 관련된 일에 소비하는 시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근무시간의 유연성, 아

버지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버지 역할 수행을 고취시키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친구처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들은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하고, 자녀와 민주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보완해줄 있는 전문적인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가족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고찰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변화 속에서 남성들은 갈등과 위기를 겪으며, 가족 내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리 잡기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찾아 나시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딸사랑 아버지 모임' 및 '두란노 아버지 학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장 근무 여건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타하기만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보다는,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역할의 권리를 되찾으려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아버지의 노력이 있을 때 아버지 스스로가 갖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체감이 확고해지며 잃어버린 아버지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동향(I)-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153-165.
- 김경신·김미란(1988).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의식과 실행연구. 목포대학교 논문집.
- 김미영(1985). 아버지의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유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 김소영·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9.
- 김은희(1995). 문화적 관념으로서의 가족. *한국문화인류학*, 27, 183-214.
- 김현주(2002). 부부 및 가정의 역할. 이동원 외(공저). *한국가족의 현주소*, 163-181, 서울: 학지사.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아청(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박용임(1996). 아버지 역할에 관한 고찰. *안동대학교 논문집*, 18, 189-203.
- 변화순·서명선·김홍숙(1995). *부성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서정아(1997).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을 위한 모임(1994). 일곱 가지 남성 콤플렉스. 서울: 현암사.
- 위영희(1978). 아동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규(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서울: 민음사.
- 이순열(1985). 자녀교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남녀 고등학생의 의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영(2003). 예수는 어떤 가정을 바라는가 -가정의 미래, 우리의 미래. 대구: 가톨릭신문사.
- 장미나(1993).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역할(FATHERING)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 · 김태성 · 김현주 · 이호준(2000).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8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효숙(1990). 유치원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성(2005). 한국사회의 남성 만들기. 제 37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45-53.
- 정현숙 · 유계숙 · 어주경 · 전혜정 · 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 조옥라(2000). 한국의 남성상과 여성상의 재인식,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학, p.45-54, 제5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안동.
- 조원지(2000). 아버지 역할 수행, 직업 역할 수행, 및 직업 역할에 의한 아버지 역할 방해정도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생활시간조사. <http://kosis.nso.go.kr>.
- 한경혜 · 송지은(2001). 중년 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1), 51-73.
- 한경혜(1998). 중년기 남성의 역할 중요도와 일/가족 갈등. 가족과 문화, 10(2), 93-113.
- 한경혜(1999). 한국사회의 부성문화와 아버지 역할행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30, 177-228.
- 황인실(2004). 가족건강성과 중장년기 성인남녀의 자아정체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illar, H. B.(1981). 아동의 성역할 발달과 아버지. In M. Lamb(Ed.)(김광웅 · 박성연 역).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170-218.
- Machtlinger, V. J.(1981). 정신분석 이론에서 본 아버지. In M. Lamb(Ed.)(김광웅 · 박성연 역).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15-66.